

가을에 펼쳐지는 고전 이야기

양희석 전남대 명예교수 '노자 강독'...9월부터 동명동 프라임픽 사마천학회 김영수 교수 '역사로 경영하라'...16회 특별 강연

다가오는 가을 고전을 주제로 한 두 개의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먼저 양희석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동명동 프라임픽(광주시 동구 장동로 25)에서 '노자 강독'을 진행한다.

5000여 자에 불과하지만 250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서양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고전이다.



양희석 교수

양 교수는 '노자'의 사유(思惟)가 개인의 삶은 물론 지구온난화 현상 등 당대의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쟁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첨단정보화 시대 이니까, '노자' (老子)를 더욱 읽어야 합니다. 마치 속도가 빠른 차일수록 올바른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가 더욱 중요하듯 말입니다."

양 교수는 "'무위자연' (無爲自然)으로 대표되는 노자의 '도' (道)는 만물의 근원과 작동 원리를 집대성하여 귀납한 것이므로, 당연히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근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노자 강독'을 '오래된 미래'를 탐색하는 것이요 요약하고 싶는데 오래전 노자가 제시한 우리의 희망적인 미래를 읽는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노자'는 저자이름이자 책이름이다. 공자(기원전 551~기원전 479)와 같거나 조금 빠른 시기인 중국 춘추시대 말엽에 활동했다. '도경' (道經)과 '덕경' (德經)으로 나뉜 '노자 도덕경'은 81장

한편 양 교수는 정년 퇴임이후 '장자'와 '노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인학당 (行人學堂) 동양고전 강좌'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문의 010-4448-3582; asia0907@naver.com)



김영수 교수

지난 30여년 바랍직한 한-중관계 확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사)한국사마천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수 교수는 광주 동강대학교 (총장 이민숙) 평생교육처 (석경휴 교수)와 특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영수 교수는 "수천 년 전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는 특강을 진행하는 것. 오는 9월 19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16주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함께 하는 콜라보 강의도 마련돼 있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유동국 교수와 함께 'Back to the Future'라는 특별한 콜라보 강의 등이 그것이다."

김영수 교수는 "수천 년 전 역사와 미래 과학기술이 만나 '온고지신 (溫故知新)'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이자 실험"이라며 "지금 우리의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위태로운데 이런 때일수록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 공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010-6733-0579.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웃긴 영화가 몰려온다

'육사오' '공조2' '정직한 후보2' 등 다음달까지 연이어 개봉

'육사오'와 '공조 2: 인터내셔날' 등 한국 코미디 영화들이 다음 달까지 연이어 관객을 만난다. 이들 작품의 제작비는 155억원을 들인 '공조 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0억~60억원대다. '탐견: 매버릭'부터 '헌트'까지 제작비 수백억원대 대작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중급 규모의 국산 코미디가 흥행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직한 후보2'

지난 24일 개봉한 '육사오'는 당점금 57억짜리 1등 로또가 바람을 타고 북한으로 날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로또를 손에 쥔 북한 병사들과 이를 되찾으려는 남한 병사들은 결국 당점금 배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분단이라는 현실에 기반한 상상을 더한 이 작품은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웃음 포인트로 승화시켰다. 코미디 장르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평을 받으며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 중이다. '나탈 7일' 개봉하는 '공조 2'는 추석 연휴 개봉하는 유일한 한국 신작이다. 북한 검열원 림철령(현빈 분)과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의 공조수사를 그렸던 전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합세해 판을 넓혔다. '범죄도시 2', '탐견: 매버릭' '한산: 용의 출현' 등 최근 영화계에서 속편의 흥행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조 2' 또한 전작 관객(781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배우 라미란이 주연한 코미디 영화 두 편도 일주일 간격으로 개봉한다. '컴백홈'은 내달 21일, '정직한 후보 2'는 같은 달 28일 첫선을 보인다.

'컴백홈'은 15년 만에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에 내려 온 무명 개그맨 기세(송새벽)가 한 조직의 보스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라미란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싱글맘 영심 역을 맡았다. 라미란에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정직한 후보'도 속편으로 돌아온다. '정직한 후보

'2'는 전(前)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에 이어 비서실장 박희철(김무열)도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두 사람이 '진실의 주둥이'로 활약한다.

박진주가 주상숙의 시누이 봉만순, 서현우가 강원도지사가 된 주상숙을 위해 일하는 '늘공'(정규직 공무원) 조태주, 윤두준이 '영 앤 리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강연준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이들 영화의 평균 제작비는 약 78억원이다. 제작비가 가장 많은 작품은 '공조 2'로 155억원이 투입됐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관객수는 300만 명을 웃돈다. '육사오'와 '컴백홈'은 50억원, '정직한 후보 2'는 6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다. 손익분기점은 '육사오'와 '정직한 후보 2'가 165만 명, '컴백홈'은 150만 명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급격한 성장과 영화관 티켓값 인상 등으로 블록버스터와 같은 '특별관용 영화'가 대체로 지리 잡은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중급' 작품의 흥행 여부는 입소문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구병모 '니니코라치우폰타' 김유정문학상 수상

올해 제16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구병모(46)가 선정됐다. 김유정기념사업회가 28일 밝혔다. 수상작은 단편소설 '니니코라치우폰타' (자음과모음 2022 여름호), 상금은 1000만 원이다.



심사위원회는 "약 40년 이후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은 우리 사회의 치매와 간병의 어두운 현실을 환기하는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병모는 "절망을 안고 쓰면서도 반어와 역설을 동원해 유머러스한 진술과 상황들을 배치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작가상 등을 수상한 구병모는 2008년 장비정소년문학상으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단 하나의 문장', 장편소설 '아가미', '네 이웃의 식탁' 등이 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6일 강원 춘천 스키컨벤션 스키야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위작 제대로 밝히기' 강연

광주시립미술관 31일, 한국미술과학연구소 최명윤소장

광주시립미술관은 '2022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즐거운 미술관 활용법'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오는 31일 오후 2시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미술과학연구소 최명윤(사진)소장이 '위작 제대로 밝히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최명윤 소장

강의에서 최명윤 소장은 진위감정 개념과 작품의 진위가 큰 이슈가 된 국내외 사건 사례를 통해 올바른 그림의 선택을 위한 미술작품의 진위감정의 필요성을 들려준다. 이와 함께 한국 근현대미술작품에서 작품 진위감정에 신뢰성이 제기되는 이유와 감정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위감정 방법과 한국미술 진위감정의 장기적 로드맵 등도 제안한다. 최 소장은 홍익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미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 보존관리과 교수,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전문위원, 한국미술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최 소장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보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원을 운영, 작품 감정의 권위자로 손꼽혀 온 최 소장의 대표적 감정 경력으로는 2007년 이중섭·박수근 대규모 위작 사건 압수 그림 실체 조사, 2010년 박수근 '빨래터' 주장 그림 진위감정 등이 있다. 문의 062-613-713. /김미은 기자 mekim@wangju.co.kr

13년 전 감동 그대로... '아바타' 고화질 재개봉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13년째 지키고 있는 영화 '아바타'가 속편 공개를 앞두고 다음 달 고화질 버전으로 재개봉한다.



샘 워딩턴과 조이 살다나, 시고니 위버도 계속 출연한다. /연합뉴스

배급사 워너브러더스컴퍼니 코리아는 '아바타 리마스터링'이 오는 9월 전 세계에서 재개봉한다고 밝혔다. '아바타 리마스터링'은 2009년작 '아바타'를 4K 해상도로 개선한 버전이다. 아이맥스와 4DX·수퍼4D·돌비시네마 등 특별관 포맷으로도 상영된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연출한 '아바타'는 지구 에너지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판도라 행성으로 향한 인류와 원주민 나비족의 대립을 그린 SF영화다. 개봉 당시 3D 영화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흥행에도 성공했다. 국내에서도 1348만 명이 관람해 외화 최초로 1천만 관객을 넘겼다.

13년 만의 속편 '아바타: 물의 길'은 오는 12월 개봉한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